



역할극을 통한 KINS와 원전 주민들의 새로운 만남

- 역할극 「입장 바꿔 봅시다」 -

최 광 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정책실 책임연구원

머 리 말

지난 12월 2일 오후 3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안전원) 대강당에는 가수 이정현의 노래 「바뀌», 김건모의 노래 「핑계», 그리고 노사연의 노래 「만남」이 울려 퍼졌다. 이날은 12월의 원자력 안전 점검의 날, 원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역할극(Role Playing)¹⁾을 하는 날이다. 이 역할극은 KINS가 지난 8월 5일의 기관 내 역할극을 시험적으로 공연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에 따라 애초 계획했던 대로 4개 원전 지역 지방자치단체

와 주민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그 개최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동의를 얻어 이날 KINS 직원들과 4개 원전 지역의 민간환경감시기구 간부들과 주민들의 참여하여 역할극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역할극에는 서울 강동구청 감사관실의 역할극 행사 주관 관계관도 내려와서 참석하였으며 대전 MBC TV에서 취재 보도하는 등 언론의 관심도 받았다.

8월의 KINS의 역할극 개최 취지와 결과에 대해서는 금년 9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 기술회의 「원자력안전문화 향상에 있어서의 정

부와 규제 기관의 역할」 주최 측의 요청에 의해 본인이 참석하여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사회심리학적인 한 방법으로서 이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많은 참가자들이 관심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회의 주최 측인 IAEA로부터 대단히 새로운(innovative) 시도라고 평가받았으며 IAEA의 제안으로 11월 10일 한국의 KINS에서 개최된 「IAEA 아시아 지역 안전 문화 훈련 워크숍」에서 영어로 대본을 준비하여 아시아 6개국 참가자들과 IAEA 강사들이 전원 참여하는 역할극(즉흥극 포함)을 개최

1) 역할극 혹은 사회극(Sociodrama)이란 참여자가 모두 각자의 역할 속에서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동작, 소리 등을 가지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며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위로 직접 참여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역할 속에서 자신이 충분히 표현되었다고 생각될 때에 진행자가 상대방과 자리를 바꾸도록 하고 다르게 느껴볼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정서적 체험 이후에는 느낌 나누기와, 대안을 마련하고(참가자가 각자 아이디어를 내고 brain-storming을 함) 이 중 하나 또는 몇 가지의 대안들을 바로 역할 연습하며, 각자 헤어지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추후 작업을 통해 각자가 계획한 것을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효과는 어떠한지 등을 알려준다. 사회극은 연극이 아니고 참가극이며, 사회 개혁과 변화를 모색하고 촉진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 및 개인 생활에 변화가 따르지 않았다면 사회극의 효과는 불충분했다고 보아야한다. 모레노는 단순한 심리 치료가 아니라 사회 운동가며 사회 개혁자였다. 사회극은 소집단간의 이익으로 인한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였다. 이 또한 참가자들로부터 원 자력 안전 분야 업무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향상과 안전 문화 향상이라는 훈련 목적 달성에 유의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IAEA의 본 워크숍 과정 책임자는 IAEA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 향후 IAEA 훈련 과정에 이러한 사회극(Sociodrama) 방법론의 사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²⁾

본고에서는 12월 2일 KINS에서 4개 원전 지역 주민과 KINS 직원들의 참여하에 개최된 역할극의 진행 내용을 가능한 한 자세히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역할극이 실험적인 것이었던만큼 현재 그에 대한 논의와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앞으로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후 학술발표회에서 발표 및 토의할 예정이다.

역할극의 진행과 내용

본 역할극은 전문 심리극 단원과 KINS 직원들이 주어진 대본에 의해서 공연하는 시범극과 시범극에서 보여준 상황이나 그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관객의 제안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자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이루어지는 즉흥극으로 구성되었다.

12월 2일 오후, 고리·영광·울진·월성 4개 원전 지역의 원자력 민간환경감시기구 간부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속속 도착하고, 그리고 징소리와 함께 무대에서는 시범극 「입장 바꿔 봅시다」가 시작되었다.

1. KINS 직원들과 전문심리극단의 시범극 공연³⁾

(장면 1)

흐르던 음악이 꺼지고 무대의 대형 화면에 비쳐진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사진을 배경으로 「영광에 가서」라는 시가 올라가고, 무대 위에

출연자가 등장하여 부분 조명 아래 그 시를 낭독하기 시작하였다. 낭독자는 KINS의 원자력 안전규제부 박윤원 부장, 우리나라 18개 원전의 안전 규제를 실제 책임지고 있는 박윤원 부장이 낭독한 시는 전남 지역 출신의 박몽구⁴⁾ 시인의 작품이다.

조상 대대로 팍팍한 벗논이나 부치고
기껏 큰 벌이라도 끼룩끼룩 처량한
조기나 잡던 벽촌에

제 삼의 불이 들어왔으니
세상은 크게 바뀔 것이라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원자력발전소를
세우면서 떠들었다

그래 세상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땅을 팔아버린 무지렁이들은 기껏
해야
발전소에 가 잡일을 거들고

발전소가 설 때마다 저들 객지 기술

2) Travel Report by Terry Taylor, IAEA Safety Culture Specialist, to IAEA Director General on "IAEA EBP Safety Culture Training Workshop for SE Asia Regional Group(Daejon, Nov.10 - 14,2003).

"The use of Sociodrama was considered to be very successful in not only "ice-breaking"but also in giving participant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ssues involved in safety culture development. A Video was produced of the activity and this is available for review from the IAEA Safety Culture Group. It is recommended that the IAEA explore the wider use of Sociodrama in its training events.

3) 이번 시범극에는 KINS 직원 3명과 영광 핵추방협의회 사무국장, 그리고 서울의 별자리사회심리극단 전문 연극자들이 참여하였다.

4) 1956년 전남 출생. 1977년 월간 <대화>에 뿌리 내리기 등 4편이 당선되어 시인으로 등단. '우리가 너에게 묻는다', '거기 너 있었는가', '젖은 눈으로', '서울에서 쌓은 산' 등 8권의 시집 출간. 동인지 5집 발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집필 활동 중



반대 성토했던 주민들과 절규하는 규제자

자들은
염려 하나 할 것 없다는데

자기네들 먹을 물은 수백리 떨어진
고창 아산댐에서 끌어오고

촌사람들만 자칫 오염되어 있을지
도 모르는
물 마시라네

무지랭이들한테는 아무 필요도 없
는
백화점을 짓고 색주가만 준비하네

제삼의 불을 발명하고 키워 가는 명
석한 머리들이
그래 사람살이는 이리도 낭떠러지
에 버려두어도 좋은가
발전소에서 흘러나온 폐수를 먹고
변진 플랑크톤 탓에
가마미 천금의 해수욕장을 망쳐
생계가 막연해진 사람들이 발전소
문 앞으로 달려든 날

이미 옛말이 된 영광 굴비가
서울에서 가짜로 되살아나 온 시장
을 누비고 있었다.

(장면 2)

주민들(별자리사회심리극단 단원
들 출연)이 무대에 등장하면서 푸념
을 늘어놓는다.

“지네들이 우리를 위해 규제한
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곳에 자기들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뭘뻘
시 우리에게 신경 써서 검사해 주겠
어...”

“환경 단체에 도움을 청하라구...
그들은 우리를 위해 일해 준다구...
고맙지. 돈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누가 우릴 위해 그렇게 일해 주겠
어?”

“글썸다... 두고 봅시다. 이 세상
에 믿을 사람 있간디? 그나저나 오
늘도 노가다 일에 빠 빠지겠네. 이
신세 언제나 면하나. 농산물은 안
팔리고, 땅값은 개 값이고... 원자

력발전소 근처 살았다고 딸 녀석 시
집이나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휴우...”

(장면 3)

원전 근처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원전 부소장과 출장 내려온 KINS
검사원들이 부소장의 권유로 합석
하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식사비 내
는 문제를 가지고 누가 먼저 계산했
니, 그러면 안되니 하고 가벼운 실
랑이가 벌어진다. 그리고 이를 지켜
보고 있는 식당 내 지역 주민들의
대화가 이어진다.

“여기 소장, 부소장이나 저들 안
전연구원(KINS) 사람들이나... 여
기 발전소 근처에 자기 마누라가 있
어 자식들이 있어. 안 그러? (열 올
린다) 와서는 몰려서 함께 밥이나
먹고, 또 입만 열면 발전소 안전하
다 안전하다 하는데... 그걸 위뭇게
믿는당가? 저들은 흥 왔다가 그냥
올라가면 그 뿐이다”.

(장면 4)

원전 지역에서 대규모 반원전 집
회가 벌어지고 있다. 메가폰을 들고
외치는 주민들. ‘여러분 그렇게 원
전이 안전하다면 왜 한강이나 여의
도에 짓지 않는 겁니까? 맞습니다.
원전 반대 원전 반대... 즉각 원전을
폐쇄하라...’ 그리고 환경보호연대
반핵국장 환경미 국장(KINS 국제



협력실 오채운 분)이 등장한다.

환경미 국장 : (마이크로 외친다) 여러분... 여러분... 원전은 환경의 적입니다. 저들은 원자력이 경제적이고 말하지만 여러분... 폐기물 문제, 국민들한테 들이는 막대한 홍보 비용과 규제 비용,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 등 심리적인 손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 OBS 방송국의 엄기용 리포터가 등장하여 환경미 국장을 인터뷰한다.

엄기용 리포터 : 여러분 오늘은 월성 원자력 근처 나아리 해변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핵발전 반대투쟁 연대의 시위 장소에서 환경보호연대 환경미 국장을 만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전국에서 약 1000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환 국장님은 원자력이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 나라의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미 국장 : 에너지 수요가 늘어난다는 걸 당연시하는 게 문제예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핵발전이 경제적이라는 말은 잘못된 신화예요. 핵발전 원가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 같은 말 하자면 그 거대 과학 기술은 말이죠... 작은 사고가 언제든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큰 사고가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유를 떠나서 핵발전은 국제적으로 사양 산업이에요. 시장이 사라지는 핵산업에 자원과 인재들을 투자하는 건 국가적인 낭비에요. 낭비. 예⁵⁾

(장면 5)

KINS 직원이 주민들 앞에서 원전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방사선이 기준치 이내로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열심히 설명하지만 주민들은 기술적인 용어들을 알아듣지 못한다.

규제자(KINS 신대수 PM 분)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철저한 규제를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주민1 : 말로만 철저히하게 철저히하게... 규제한다면서 지금까지 원전의 가동을 중지시킨 적 있어요? 있어요?

주민2: 맞아요~~ 아까 설명 중에 원전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왜 가동을 계속시키죠?

규제자: 방사선이 기준치 이내였 습니다.

주민1: 아니~ 뻑하면 무조건 기준치 이내, 기준치 이내... (언성을 높이며) 그러지 말고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 못해요?

규제자: (화난 듯 목소리 높이며) 좀 전에 한 브리핑 못 들으셨어요? 기준치 이내였다고 했잖아요.

주민1: 아니 근데 근데 왜 큰소리야? 당신이 왜 큰소리를 쳐?

주민2: 저저 봐~ 한수원이랑 한 통속이라니까? 말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 결국 한수원이랑 짜고 고스톱 치는 거 아니냐?

주민들: 맞아~ 그제 우리의 목소리를 수용할 자세야? 당신들 좀 반성 좀 하라구. 알겠어?(아우성)

이때 무대위로 규제자 내면의 상반된 생각들을 대변하는 이중 자아가 둘 등장한다. 이 이중 자아(double)란 심리극 혹은 사회극에서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이다.

이중 자아1(규제자에게) : 아~ 저 사람들 정말 무식하구만.. 저렇게 무식해두 되는 거야? 그만큼 설명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규제자: 그치.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하냐구..

이중 자아2(규제자에게) : 주민들

5) 이 내용은 2003년 10월 30일 평창에서 개최된 한국원자력학회 추계 학술발표회에서 특별 강연한 환경연합 양이원 영 국장의 발표 '핵발전과 핵폐기장의 문제점, 한국의 에너지정책의 전환'에서 발췌하여 사용한 것이다.



토론허 무대 위에 올라와 “모두들 그만하라”고 외치는 주민

입장에선 당연히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용어가 어렵지..

규제자: 정말 힘들구만... 힘들어.. 도대체 나더러 어떻게 설명하라는 거야?

주민들 무대 중앙에 머리띠를 두르고 무대 뒤에서 나와 규제자를 에워싼다.

주민 대표: 한수원은 이 지역의 원전을 즉각 폐쇄하라! KINS는 각성하라~

주민들: 각성하라~ 각성하라~ 원전 반대~~ 원전 반대~

반대 성토히는 주민들과 절규하는 규제자

규제자: (고민하다가 소리친다) 그만! 대체 날더러 어찌란 말이야.

(장면 6)

원자력 안전 관련 토론허에서 규제기관, 언론사 기자, NGO, 국민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원자력 안전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김호동 기자 : 솔직히 우리는 KINS 보다는 환경 단체 자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KINS 보도 자료는 도대체 알맹이가 없어서 말이죠. 환경 단체 자료는 찾아보면 우선 양이 많고 당신들 것보다 내용이 훨씬 풍부하고 정성껏 작성되어 있어요. 기자는 정성껏 만든 자료에 더 끌리는 법입니다. 솔직히 당신들이 하는 정보 공개는 면피주의 아니요.⁶⁾

신규제 : 사실상 규제 기관이 정확한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려면 확인하고 결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확인 안된 자료를 내보낼 수는 없거든요.

김호동 기자 : 우리는 국민과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또 가능하면 상세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발표하는 내용은 너무 짧아 도저히 기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문장도 많아요. 대중 자료를 갖다 주

고, 더 알고 싶으면 담당자에게 전화로 자세히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문필봉 기자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 물어보면 저기 물어보라. 저기 물어보면 또 여기 물어보라.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할 기관에서 그렇게 성의 없이 기자들 핑퐁 치기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럴수록 의구심만 더 생기고 솔직히 기분도 나쁩니다. 그러다가 사실이 과장이 될 수 있어요.

신규제 : 하지만 언론들이 솔직히 너무 선동적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알려야 할 본연의 사명감으로 임하신다면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더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우리도 애로 사항 많습니다. 나도 공부 할만큼 해 가지고 하필 원자력에 들어서 왜 이런 소리 듣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청중들 : (야유한다) 여보시오!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그런 소리할 수 있소?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될 거 아니야.

환경미 국장 : 나도 말 좀 합니다. 주민이나 국민들은 사업자들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규제자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는

6) 이하 김호동 기자의 발언 내용은 <원자력산업> 2003년 5월호에 게재된 동아일보 과학부 신동호 기자의 글 「원자력 안전의 사회적 수용성」 언론에서 바라본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에서 발췌하여 일부 사용하였다.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제대로 일 하면 우리가 왜 반핵 활동 합니까? 우리 원자력 말고도 할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신규제 : 그렇지만 그러한 정서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규제자들이 그러한 주민들 불안 심리 때문에 실제 안전 검사 업무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신경을 쓰느라고 안전 검사 업무가 소홀해지면 어떡합니까? 안전이라는 걸 가지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미 국장 : 뭐라고? 그게 어디 우리 잘못이에요? 검사야말로 누가 뭐라건 규제 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올진 4호기 세관 파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 핵산업계가 보인 안전 불감증은 정말 심각했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말하는 안전을 믿을 수 있겠어요. 당신들은 다 한수원과 한 통속이야.

신규제 :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전이 잘 돌아갈 때는 조용하고 발전소만 좀 서면 사고니 방사능 유출이니 하면서 난리를 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 선정적인 보도 때문에 국민들이 겁을 먹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문필봉 기자 : 우리는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겐... 원자력이 안전하다 어떤 다 하는 건 기사가 안돼요. 위험하

다고 해야 기사거리가 되죠. 그리고 우리 신문에 기사 안나갔는데 다른 신문에 기사 나와 봐. 데스크에서 난리가 나. 우리는 기사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니요? 딱 신문사하고 경쟁인데 자료를 안 주면 기사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소설이 기사로 나간 다구.

신규제 : 우리는 공식적인 확인된 것만 보도해야 합니다. 결재 라인 밟아야 하고. 그러자니 확인된 것만 짚막하게 보도할 수밖에. 우리도 그런 애로 사항 있어요. 빨리 많이 내보내려고 하다고 미쳐 확인 안된 것 나가면 허위 사실 유포했다고 난리칠 것 아니요?

주민 : 나도 말 좀 합시다. 발전소에 검사 내려왔으면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냐? 누구를 위해 검사하는데? 왜 우리에게 직접 안 알려주는 거요? 그런데 항상 검사 결과는 합격이래... 그래놓고 몇 달 있다 사고 나면 그래도 괜찮고 안전하대. 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누가 믿겠냐고.

민간환경감시기구 : 민간환경감시기구 보고는 발전소 바깥만 쳐다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발전소 안쪽은 저희들 영역이라니. 우리도 주민들을 대신하는데 발전소 검사 활동에 입회하면 뭐가 문젭니까? 어디 풀리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도 자신이

없습니까?

신규제 : 글썄... 그건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청중 : (뛰어나오며 매우 화난 어조로 소리친다) 똑같은 소리 그만하란 말이야. 우리는 발전소도 못 믿고, 그리고 KINS도 못 믿고, 과장 보도하는 언론도 싫어. NGO 당신들도 마참가지고.. 다들 자기 입장에서만 떠들고 있잖아. 모두들 자기들만 잘났대... 당신들 말이야. 이 건 분명히 알아 뒤.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거야. 알겠어? 다들 자기들 입장만 떠들고 있어. 나쁜 사람들...

토론장 무대 위에 올라와 '모두들 그만하라'고 외치는 주민

(장면 7)

마지막 장면이다. 영광 핵추방협의회 하선종 사무국장이 무대에 등장하여 화면에 KINS 건물 전경이 푸른색으로 비쳐지는 가운데 KINS의 업무 지표와 직원윤리강령을 읽는다. 이 역시 역할 바꾸기를 통하여 핵추방협의회 사무국장이 KINS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다른 쪽을 이해하려는 시도였으며 KINS 측 간청에 의해 이루어졌다.⁷⁾

"우리는 국민이 궁극적 고객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게 원자력 안전 규제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우리는 최신 기술과 지식에 근거하여 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규제 기술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시키며 적기에 명확한 규제 판단을 내린다(KINS 업무지표 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을 실천하고자 한다.

윤리강령 제11조 ! 우리는 규제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와의 개인적인 이해 관계를 갖지 아니하며 규제 업무의 공정성이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윤리강령 제14조 ! 우리는 사업자로부터 규제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품, 선물, 향응 및 기타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KINS 윤리강령 중에서)“

2. 즉흥극 공연

시범극 후 객석의 영광·고리·월성·울진 지역 주민들과 KINS 직원들의 본 역할극에 대한 느낌에 대한 발언이 있었으며, 그 후 별자리심리극연구소 김영한 소장의 진행으로 무대 위로 객석 중에서 KINS 직원 두 사람(이종인 전문위원, 규제부 하종태씨)과 고리 민간환경감시센터 최선수 센터장, 월성

원전 지역의 양복면의 정창교씨와 양남면의 김재금씨가 올라와서 심리극단 단원들과 함께 즉흥극을 하였다.

역할극을 하면서 민간환경감시기구 입장에서 사업자(별자리심리극단원 분)를 앞에 불러다 놓고 따지던 최선수 센터장은 진행자가 사업자 측과 역할을 바꾸라고 하자 자리를 바꾸고는 이제는 원전사업소장이 되어 방어하는 입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종인 KINS 전문위원이 KINS 측 전문가로 나와서 답변을 하다가 다시 진행자의 인도에 따라 민간환경감시기구 입장이 되어보았고 그리고 최선수 센터장은 다시 KINS 자리에 앉아 그 입장이 되어 답변을 하는 등 역할 교대(Role reversal) 기법이 사용되어 즉흥극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장면을 바꾸어 월성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활성 단층 문제에 대하여 역시 사업자(별자리심리극단원 분)와 KINS전문가(KINS 규제부 하종태씨 분)를 앞에 놓고 질의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진행자는 이들의 자리를 바꾸어 역할을 바꾸게 하고 대화를 진행시켰으며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 역할을 바꾸어 보게 한 후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즉흥극이 끝

났다.

이후 은영수 KINS 원장의 최종 강평과 인사말이 있는 후 역할극 「입장 바꿔 봅시다」는 전부 끝났으며 KINS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눈 후 4개 지역 주민들은 모두 다시 자신들의 지역으로 출발하였다.

이번 역할극에 대한 반응과 평가

1. 역할극 목적에 대한 오해

이 역할극은 2003년의 준비 과정에서 현재 진행중인 위도와 부안군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다. 즉 지역 주민들과 언론사에서는 역할극이 이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한 원자력계의 전방위적인 노력 혹은 활동의 일환이 아니냐는 반응을 먼저 보였다.

애초부터 KINS 역할극의 목적은 원자력 안전성의 향상이었다. 즉 KINS가 규제 업무를 하는 것이 지역 주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KINS 직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우려와 불안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평소 KINS 직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를 직접 대면하여 느

7) 사실 이러한 행사에의 참여, 더구나 무대에서의 출연은 핵추방협의회 성격상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역할극이 하나의 연극이라는 점, 그리고 입장을 바꾸어 서로를 이해해 보자는 우리의 취지를 이해하여 이루어졌다. 다시 한번 하선중 사무국장에게 감사드린다.



길 기회가 없으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업무 의식을 높이고 그것은 우리의 안전 문화 향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규제 기관에 와서 규제자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은 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줄임으로써 그들의 체감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것은 원자력 안전이라는 공공 재화를 제공하여 국민을 안심시킨다는 정부 규제의 정치 경제적인 목적과 일치한다는 것이다.⁸⁾

2. 역할극에 대한 반응

역할극(Role playing)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으나 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가 있지 않고는 그 목적과 시행 내용에 대해 실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지역을 방문하여 역할극을 설명하기 시작할 때는 KINS를 알리기 위한 단순 홍보 목적 정도로 생각하던 분들도 약 1시간 정도 설명하면 거의 대부분 흥미를 가지고 이해를 하였다. 어떤 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지역 주

민들과 함께 시도해 볼 것을 고려하기도 하였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주민 혹은 시민들을 위하여 일반 분야에 이러한 역할극을 시도해 볼 의향을 비치기도 하였다.

그 동안 접촉한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원자력 안전 규제 전문 기관인 KINS가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가와서 지역 주민의 정서를 이해하고 체험하여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직무 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 결과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중심으로 4개 지역 모두가 대전에서 개최된 본 역할극에 참여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3. 역할극에 대한 비판

이 KINS의 이번 역할극에 대한 기관 내부와 외부의 비판론도 있었다. 이것이 대외 과시성 행사가 아니냐, 즉 한바탕 쇼에 불과하였다는 강한 비판으로부터 그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겠다는 비판,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KINS

가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놓고 KINS의 과거 일부 있었던 부정적인 면을 과장하여 보여주었다는 비판, 충분히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참여자들이 warm-up이 되지 못하여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내 놓지 못하였다는 지적, 정작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놓고 KINS 간부들은 역할을 바꾸어 변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지적, 그리고 이러한 역할극 방법론이 분명 좋은 수단이기는 하지만 KINS가 아직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초청하여 이러한 행사를 한 것이 부적절하였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모든 행사는 약간은 쇼의 성격을 갖는다. 공연이라는 형태를 빌릴 때는 더욱 그러하고 또 무대에 올려질 때는 극의 성격상 약간 과장된다. KINS의 다소 부정적인 면이 공개적으로 거침없이 연기자들의 입과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는데 대하여 직원들은 마음이 편치 못하였을 것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참여자들

8) 이 방법론이 좋은 반응을 얻을 경우 규제 기관과 지역 주민이 아니라 원전 운영자측이 그 지역 주민들과 이러한 역할극을 해당 지역에서 꾸준히 개최함으로써 평상시의 갈등 관계를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원전 운영자들의 안전 의식과 업무 의욕이 더욱 높아지고 지역 주민들은 원전 운영자 측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아 실제적으로 체감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문제는 보다 더 복잡하여 지금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한다고 하여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보지만 앞으로 과학기술적인 방법과 홍보와 교육에 병행하여 이러한 방법론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원자력산업회의와 원자력 문화재단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각 원전 지역에서 원전 운영자들과 지역 주민들 간의 사회극 추진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사실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소' 하고 좋은 면만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들이 과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겠는가.

원자력 분야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긍정적인 면만을 홍보해 온 것이 아니었던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역할극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다른 기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4. 본 역할극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과 평가

당일 참여하였던 고리·영광·울진·월성의 민간환경감시기구 및 주민들이 저녁에 모두들 바쁘게 귀가하여야 했던 관계로 역할극 전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아직 전부 수집되지 못하였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부정적인 평가도 물론 있었다. 모든 참여자들의 의견을 다 대변하지는 못하겠지만 울진지역 사회문제연구소 황천호 소장이 보내온 의견을 다음에 전재한다.

“오랜 기간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민들과 원자력 관련 기관과의 관계는 불신과 흑백 논리의 높은 담에 막혀 소통의 물꼬를 트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 소통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며 문제 해결의 출발이다. KINS에서 원전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와 안전 관리 방법을 달리함으로 원자력의 안전 문제에 대한 이해를 주민과 함께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원전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기술적 안전성을 강제 주입하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열린 공간에서 공동의 고민과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된 역할극 「입장 바꿔 봅시다」는 많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역할극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자신들의 생각만 주장하던 사람들이 내가 그 입장이 되어 보니 그와 다를 수 없음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자칫 역할을 바꾸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단순 이해로 그쳐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보다 더 고민하고 문제의 깊은 원인을 찾아내어 설득력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해시키려는 관계로부터 갑자기 역할이 전환되어 상대의 입장이 됨으로써 심리적 치료, 이해, 대안 등의 역할극의 목적이 이루어졌지만, 극중 역할의 전환과 타인의 입장이 된데서 오는 어색한 표정과 어법으로 희화화되어 한바탕 웃음으로 끝나면 관람객들과 극의 참여자들의 깊은 사고와 이해를 반감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칫 해프닝으로

끝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극이 다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극의 내용이 목적성을 갖고 선별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면 한다. 즉흥극에의 참여자 또한 사전 협의가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 상대의 입장이 되었을 때 나라면 어떻게 대답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여 몸으로 진정한 입장 바뀔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

KINS의 역할극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한 주민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시도는 대다수 참여자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과학적 기술적 안전성의 이해를 돕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맺음말

사회극이란 것이 단순히 입장을 바꿔보니 역시 같은 말을 하게 되더라는 확인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 역할 연기 그리고 나눔(sharing)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활동에 착수할 것인가에 대한 토의 그리고 그 후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모레노가 의도한 사회극의 역할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큰 강당에 여러 사람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재미와 그리고 진지함까지 함께 갖추면서 그러한 목적을 달



성하는 것은 무리였다고 생각된다.

지난 11월 10일 IAEA Workshop에서 시도한 역할극이 경험 있는 진행자의 directing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고 참여자가 30명 이내로 적절할 장소에서 충분히 워밍업을 한 후 시범극 없이 모든 사람들이 대본에 의해 연기를 하고 바로 장면 마다 즉흥극을 하였으며 역할극 후 함께 나누기(sharing)가 충분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상당한 평가를 받았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⁹⁾

이 역할극은 이에 대한 몇몇 비난과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위한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과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증진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논의의 거리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심리극 창시자인 조셉 모레노는 이 사회극을 통하여 사람들이 마음속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개발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내면 세계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필자는 이

방법론이 심리학적인 근거와 수십년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서 원자력 분야에서 홍보와 교육 등 다른 여러 노력과 함께 계속 시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자력 안전성 향상과 그것에 대한 대중 신뢰(Public confidence)의 확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원자력 규제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원자력 기술자들 혹은 규제자들 사이에 이러한 심리학과 사회극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면 이 사회극 방법론은 여러 나라에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KINS와 지역 주민과의 이러한 역할극 혹은 사회극(sociodrama)을 통한 만남은 사회심리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무대에서 만난 '새로운 만남'으로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 이 방법론은 원자력 사업자와 KINS 간에 역할극을 개최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에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는 전문 극단의 도움 없이 심리극 진행자에 의해 대본을 가지고 혹은 바로 사회극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규제자는 보다 합리적인 규제를, 사업자는 규제에 보다 협조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반핵 입장을 견지하는 NGO들과 KINS간의 역할극도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요청도 있었지만 이러한 시범극을 원전 현장을 순회하면서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하에 개최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¹⁰⁾

부안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문제가 다시 언론의 보도를 타고 있다. 많은 국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17년을 끌어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문제를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든다.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포함한 원자력 안전의 문제를 푸는 해법은 다양하게 추구되어야 하며 어떤 가능성도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극 혹은 역할극에도 원자력 분야 관계자들이 적절한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자 한다. ☉

9) 그런 측면에서 이 역할극은 앞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역할극 진행을 큰 강당의 무대에서 연극적 요소를 보여주는 많은 사람의 참여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참여자 수를 많지 않게 하여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본은 작성하되 전문극단의 시범극 없이 바로 모든 참여자가 함께 역할극에 들어가도록 한다. 이때 강력하고 경험있는 진행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둘째, 소재 혹은 주제는 비교적 세부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역할극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10) 이 경우 시범극은 참가자의 참여와 역할 교대는 없이 연극 프로그램으로서만 진행하고 연극 관람 이후 참가자들이 그 자리에서 각자의 느낌을 말하도록 하고 끝내는 것이 좋다. 충분한 정서 체험 없이는 역할 교대가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참가자의 역할 참여 없이는 사회극 범주에 넣을 수 없다.